

動向分析

要 約

▷ 주요 목차 ◁

- I. 勞動市場
- II. 勞使關係

I. 勞動市場

● 雇 傭

1992년 1/4분기  
 경제성장률 7.5%  
 제조업성장률 7.9%  
 소비자물가상승률 7.2%

1992년 1/4분기의 경제성장률은 해외부문 부진과 건설경기 진정등으로 전년동기의 8.7%보다 1.2%포인트 하락한 7.5%를 시현하였다.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7.9%로서 1989년 이후 전산업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이 지속되어 성장내용이 충실해지고 있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은 선박, 화학제품 등의 수출증가로 11.4% 성장한 반면 섬유, 의복, 신발 등 경공업부문은 인력부족과 국제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성장률이 1.2%에 머물러 제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편 1992년 1/4분기에 도매물가는 전년동기대비 2.5%, 소비자물가는 7.2% 상승하였다. 이는 지난 동기보다 각각 2.5%포인트, 5.4%포인트 하락한 결과로 안정성장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감속성장의 결과로 1992년도에는 인력부족이 완화되고 노사관계에서 고용안정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1992년 1/4분기  
경활인구 3.6% 증가  
취업자 3.7% 증가  
실업률 2.9%

1992년 1/4분기에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하고 취업자는 3.7% 증가하여 실업률은 2.9%로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1992년 1/4분기중 노동시장은 감속성장추세에 따라 노동수요증가율이 둔화되어 실업자가 약간 증가되어 노동력부족현상이 약간 완화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1992년 1/4분기에도 경제활동인구는 그 구성상 여성화·고령화 그리고 고학력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0~2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대비 2.5% 증가에 그쳐 증가율이 전년동기보다 크게 낮아졌다. 이는 주로 경공업부문에서의 여성취업이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5~54세의 핵심 노동력계층의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에 비해 2.7% 증가하여 안정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 연령계층의 경제활동 증가는 남성이 주도하고 있으며 여성은 단기적 등락이 심해 부차적 노동력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55세이상의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기대비 10.9% 증가하여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가 더욱 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2년 1/4분기  
산업별 취업자  
제조업 2.1% 감소  
건설업 12.0% 증가  
서비스업 5.9% 증가

1992년 1/4분기의 산업대분류별 취업자 동향을 보면 제조업은 1991년 4/4분기에 시작된 취업자 절대수 감소추세가 더욱 확산되어 전년동기대비 2.1%나 감소했다. 이는 주로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산업에서의 고용감소의 결과이다. 한편 건설업은 건설경기 진정대책의 효과로 고용증가추세는 안정되어가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내수경기의 호조로 취업자가 전년대비 5.9% 증가하여 전년동기의 4.3% 증가율보다 크게 높아져 제조업에서 서비스부문으로의 노동이동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2년 1/4분기  
직종별 취업자  
생산직 0.7% 감소  
사무직 11.4% 증가

1992년 1/4분기의 직종대분류 취업자 동향을 보면 민간소비지출이 약간 안정되면서 판매·서비스직은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전문·기술·행정관리직과 사무직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3.9%, 11.4% 증가하여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소프트화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생산직의 경우 제조업 및 건설업의 성장률 둔화를 반영하여 전년동기의 6.6% 증가에서 반전되어 0.7% 감소하였다.

1992년 1/4분기  
고용형태  
상시고 3.3% 증가  
일고 0.9% 증가  
비임금근로자 5.9%  
증가

1992년 1/4분기의 비농부문 고용형태변화를 살펴보면 상시고는 전년동기대비 3.6%, 일고는 0.9% 증가하여 노동시장의 고용안정률이 1990년 2/4분기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고는 전년동기의 5.8%보다 증가율이 크게 낮아져 제조업 생산직 감소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비농부문 비임금근로자 증가율 5.9%는 임금근로자 증가율 3.0%의 두 배 수준으로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빠른 증가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 賃 金

1992년 1/4분기  
정액급여 572천원  
초과급여 81천원  
특별급여 159천원

1992년 1/4분기중 월평균임금총액은 전년동기대비 21.0% 상승한 813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동기의 상승률 15.8%보다 5.2%포인트 증가한 것인데 주로 1/4분기에 집중된 특별급여의 높은 상승에 기인한 결과이다. 그러나 매년 임금교섭이 2/4분기와 3/4분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1/4분기의 임금상승은 단지 전년도의 임금상승을 반영하는 것이다. 1991년 누적 임금상승분을 제외하면 정액급여의 경우 전년말대비 1.8% 상승하여 자연승급분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전년말대비 정액급여가 1990년 1/4분기는 3.4%, 1991년 1/4분기는 2.6% 상승했음에 비하여 볼 때 증가율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초과급여는 전년동기대비 15.6% 증가에 머물러 전년동기의 15.8% 상승과 비슷한 상승률을 시현하였다. 초과급여상승률이 평균보다 낮은 이유는 고임금추세가 계속되면서 사용자는 초과근로를 되도록 억제하고 있고 생산직근로자 역시 소득상승효과로 초과근로를 기피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992년 1/4분기  
직종별 임금  
생산직 663천원  
사무직 912천원

1992년 1/4분기의 직종별 임금은 생산직이 663천원, 사무직이 912천원으로 생산직/사무직 임금비율은 72.7%로서 전년동기의 상대임금비율 70.1%에 비해 직종간 격차의 완화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생산직의 인력부족현상에 따른 노동시장적 요인과 노동운동이 생산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사관계 요인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1992년 1/4분기  
규모별 임금  
사업체규모간 임금격차  
확대

1992년 1/4분기의 규모별 임금상승률을 보면 10~29인 규모의 영세기업은 21.5%이고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20.3%로 나타나 규모별 임금상승률의 차이가 없으나 영세기업과 대기업과의 절대임금수준의 격차확대는 1987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

### ● 勤勞時間

1992년 1/4분기  
월근로시간  
전산업 200.2시간  
정상근로 0.2% 감소  
초과근로 0.8% 감소

1992년 1/4분기중 월평균근로시간은 200.7시간으로 전년동기 대비 0.5시간 감소한데 머물러 1989년 이후 근로시간의 빠른 감소추세가 상당히 감속되었다. 주당 근로시간은 전산업평균이 46.2시간, 제조업은 47.3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추세가 감속되는 이유는 1990년 10월 이후 300인 이상 기업의 법정근로시간 단축효과가 대부분 반영되었고 또한 최근 감속성장으로 고용을 늘리지 않고 근로시간을 조절하는 경영전략이 확산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 II. 勞使關係

### ● 勞動組合

1991년 노동조합  
조합수 7,656개  
조합원수 1,803천명  
조직률 19.8%  
평균조합원수 236명

1991년 12월말 기준으로 노동조합수는 7,656개소로 1990년말보다 42개소 감소(0.5%)하였고, 조합원수는 1,803,408명으로 전년말보다 83천명 감소(4.4%)하였다. 그 결과 조직률은 비농가 상시고 기준으로 1989년의 23.4%를 정점으로 1990년 21.7%, 1991년 19.8%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는 주로 노동조합의 조직기반인 제조업 상시근로자의 감소추세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유연한 고용전략과 더불어 노동조합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미흡의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1991년에 조합수 감소폭보다 조합원수 감소폭이 훨씬 커서 단위노조당 평균조합원수는 236명으로 1987년 6월의 383명

을 정점으로 한 평균조합원수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근로자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조직률이 80%를 넘어서서 신규조합이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조직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경공업부문의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고용감소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포항제철 1개사에서 조합원수가 1991년에 23천명 감소하여 전체 조합원 감소분의 약 28%를 차지한 것도 조합원 감소의 중요한 이유이다.

● 賃金交渉

1992년 6월말 현재  
중점관리대상업체  
교섭진도율 72.8%

1992년 6월말 현재 780개 임금교섭 중점관리대상업체 중 568개소가 임금교섭을 마무리하여 교섭진도율은 72.8%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부문은 상반기에 임금교섭이 100%(106개) 완료되어 조기 임금교섭타결을 주도하였다.

● 勞使紛糾

1992년 6월말 현재  
분규건수 146건  
해결건수 123건  
쟁의발생건수 21.9%  
감소

1992년 6월말 현재 노사분규는 총 146건이 발생하여 123건이 해결되었고 23건이 진행중이다. 노사분규건수는 전년동기대비 41건이 감소하여 21.9%의 감소율을 보여 안정적 노사관계가 전년에 이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 분규의 선행지표인 쟁의발생신고는 6월말 현재 815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4.5% 감소하였다. 한편 쟁의전이율은 17.9%로 전년동기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으나 이는 올해 들어 체불임금관련분규의 증가 때문이다.

1992년 6월말 현재 노사분규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임금인상 58.2%, 단체협약 17.8%, 체불임금 14.4% 순으로 나타났는데 전년동기에 비해 체불임금관련분규가 급증한 것이 특징적이라 하겠다. 체불임금관련분규의 급증 원인으로는 산업구조조정과 경제여건의 악화로 광업과 중소기업의 휴·폐업 및 도산이 많았기 때문이다.